

부산은 EXPO에 좋습니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였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2023.6 2023.11

○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 개최국 선정 투표
(17개 회원국 비밀투표)

■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2023. 10 Vol. 59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9
2023. 10

영광의 인물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회장
김중웅 원로

스포츠 히어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이슈 & 포커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10 Vol. 59



발행일 2023년 10월 16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우, 문찬식, 김성무, 한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흐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

체육 발전

-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서갑병 회장
- 08 영광의 인물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
김중웅 원로
- 12 부산체육의 미래
사직고등학교 수영부
이송은 선수
- 16 스포츠 이야기
2025년 부산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부산의 자부심 지킨다



인

인화 소통

- 20 스포츠 히어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 26 달려라 부산체육
송정씨름클럽

- 30 이슈 & 포커스
대한민국, 함께 날아오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32 부산스포츠 기자단
-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

지식 나눔

- 36 스포츠 PLUS +
몸으로 하는 체스
펜싱

- 40 건강 라이프
관절염을 예방하는
슬기로운 자세

- 42 스포츠 정보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체육,
생활체육 ①

업

업글 소식

- 46 문화 공간
전시 “2023 부산모카 플랫폼: 재료 모으기”

- 48 BSC 뉴스
-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 50 회원단체 소식

-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 56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 ●

초·중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감독님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격프로그램을
구상해 사격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한 발, 한 발, 부산 사격을 만나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제21대 회장,
원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갑병

15여 년 동안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며 묵묵히 선행을 이어오던 중 부산광역시사격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서갑병 회장. 그는 부산 사격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사격과 뜻밖의 연애

지난 7월 말 취임 이후 갓 3개월 차에 접어든 서갑병 신임 회장에게 취임 소감을 묻자 너무도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 사격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산광역시사격연맹 회장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연애하듯이 사격을 알아가며 친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 회장은 군대에서 총기를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4~50대 무렵 제주도와 해운대 등지에서 가볍게 사격을 경험해 봤는데, 클레이 사격의 경우 날아가는 접시를 산산이 조각낼 때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회장직을 맡으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사격을 알아가는 중이다.

“사격은 한 발 쏘기 위해 많은 과정과 무수한 변수를 이겨내야 하는 스포츠더라고요. 또한 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신력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체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면 임원진들과 함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연애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법. 서갑병 회장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사격과 천천히 가까워지는 중이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은 1963년 창단 이후 60년 동안 부산 사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결출한 선수도 다수 배출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2관왕을 차지한 진종오 선수(당시 KT 소속)와 동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김장미 선수(당시 부산광역시청 소속) 등의 활약으로 부산 사격은 맹위를 떨쳤으며, 그 기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이 전국에서 사격 강팀으로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임원분들을 포함, 여러 사격인들을 만나보았는데 하나같이 열정적이세요. 진심으로 사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죠. 부산 사격이 현재 반열에 오른 데는 이런 분들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회장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자들의 큰 헌신 덕분에 사격이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된 것이라며 서갑병 회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음에 온기를 더하다

서갑병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노라면, 절로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일찍이 어려운 사람을 돋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9년 한 어린이재단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아동후원을 이어오는 중인데, 처음 후원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혹 창피해할까, 주눅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후원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았을 때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가 후원한 아이들은 의대를 비롯해 우수한 대학 진학은 물론 대기업에 취직하는 등 어려운 환경을 딛고 꿈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서갑병 회장은 현재도 8명의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 대표로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어린이재단과 연계해서 작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다.



“흔히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 영역입니다. 저는 건설회사 대표로서 누수된 건물을 방수해주거나, 웃풍 등 오래된 창호 교체가 필요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있죠.”

성공리에 1호 프로젝트를 끝낸 후, 현재 2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갑병 회장은 일찌감치 차기 계획도 밝혔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인들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3호 프로젝트는 부산 사격인들을 위해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사격환경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시작!

시설과 환경이 갖춰지면 자연스레 사격 종목이 활성화될 것이다. 서갑병 회장은 특히 부산 사격의 중심인 영도사격장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시설이 50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사격장은 최소 20배 이상의 규모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사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부산대표선수단이 좋은 활약을 펼친 만큼 부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도 시설 개선에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한 사격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 제도 및 체육특기생 제도 등 복리후생을 통해 선수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하며, 임원진과 지도자들을 자주 만나 고충을 듣고 애로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데요. 초·중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감독님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격프로그램을 구상해 사격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대표사격팀은 사격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올해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전라도에 도착해 훈련에 매진 중이



다. 이에 서 회장은 부산 사격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임원 및 지도자들과 협의해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땐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격을 책임질 유망주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평소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서갑병 회장. 자기만 내세우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여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 부산광역시사격연맹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인사를 전했다.

“부산 사격 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좋은 연맹과 팀이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 골프의 대중화에 헌신하다

前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 김중웅 원로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한국 골프의 대중화는 1970년대부터 급속도로 진전됐고, 부산 골프의 대중화는 1980년대부터이다. 부산 골프의 중심, 그 역사와 함께한 김중웅 원로를 만나보았다.

운명처럼 다가온 골프와의 첫 만남

김중웅 원로가 처음 골프를 만난 곳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였다. 1980년 그가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정부 지원으로 방학 동안 영국 런던대학으로 3개월 연수를 가게 되었다. 연수 기회가 훈치 않던 때라 영국에서 보냈던 시간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하다.

“제가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연구 실적이 좋았는지 정부 지원을 받아, 테니스 종주국인 영국의 런던 대학에 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워블던은 워낙 유명해 꼭 가고 싶었는데, 덕분에 워블던 경기장도 가 보았죠. 런던대학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과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방학 기간 에든버러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스코틀랜드의 스포츠 문화도 체득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왜 골프는 18홀일까?’하는 궁

금증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골퍼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가 18홀이기 때문이다. 그곳을 김중웅 원로는 영국 일주를 하다 우연히 밟게 되었다.

“1980년대는 한국에서 골프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무렵이라 부산은 아직 골프보다는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테니스 종주국인 영국에서, 골프의 성지인 스코틀랜드까지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올드코스를 다 밟아보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김중웅 원로는 1980년 교수 테니스대회 우승으로 화려하게 테니스를 마무리한 후, 1981년 8월 정식으로 골프에 입문했다.



• • •

이제 골프는 대중의 스포츠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원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굉장히 다양하기에,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첫 단추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 전에 골프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협회 창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직 부산에서는 골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와 함께 골프를 시작한 몇 명이 모여서 골프협회 창단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협회 창단 준비는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1985년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창립 준비위원회(체육계 21명, 언론계 2명, 골프계 2명)를 결성하였고, 1986년에 초대 백제갑 회장(동성화학 회장)이 추대되었는데, 이때 김중웅 원로는 전무이사로 창단에 힘을 보탰다. 이후 협회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사업은 가속화되었다.

주니어 육성을 위해 협회 이사를 중심으로 장학사업 (김미현, 김승혁 선수 등 다수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언론사(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등)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일반 남녀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또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골프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낸 덕분에 부산에서 골프의 인지도는 크게

올랐다. 이후 김중웅 원로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까지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으로서 부산 골프에 헌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부산의 골프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며, 매년 참여 인구만 2천만 명으로 집계된다.

“이제 골프는 대중의 스포츠입니다. 골프를 즐기는 인원이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굉장히 다양하기에,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이용 세금 등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가 골프 대중화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그만의 운동 철학과 골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운동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프는 평생에 걸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저는 걸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골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인생 항로와도 같은 골프의 여정

골프를 즐기는 데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힘이 있고, 골프채를 잡을 힘만 있으면 된다는 김중웅 원로. 골프가 드넓은 필드 위에서 하는 특성상 6~7km를 걸어야 하기에, 골프를 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특히 중장년기에 필요한 걷기 운동을 추천한다. 그 또한 골프 약속이 잡히면 2~3일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나 목욕탕에서, 10~20분 정도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한다. 또한 하체 근력 운동을 위해 평소 보폭을 넓게 하여 걷고, 까치발로 뒤틀리기를 수시로 한다. 그렇게 체력을 유지하며 하루의 중심을 유지한다.

골프의 매력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20~30만 평 이상 되는 초원 위에서 맑은 공기를 맑으며 서 있으면 일상의 복잡한 생각과 정서가 정돈되며 감정의 소용돌이도 가라앉힐 수 있다.

“골프는 인생 여정에 자주 비유되곤 합니다. 플레이 시 매너와 에티켓은 기본이고, 수많은 룰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드넓은 자연에서 플레이하는 운동이기에 스케일도 큽니다. 그러나 보니 변수도 많고 골프 용어도 다양합니다.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오른 헨리 롱 허스트가 ‘골프를 보면 볼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을 보면 볼수록 골프를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이유를, 골프채를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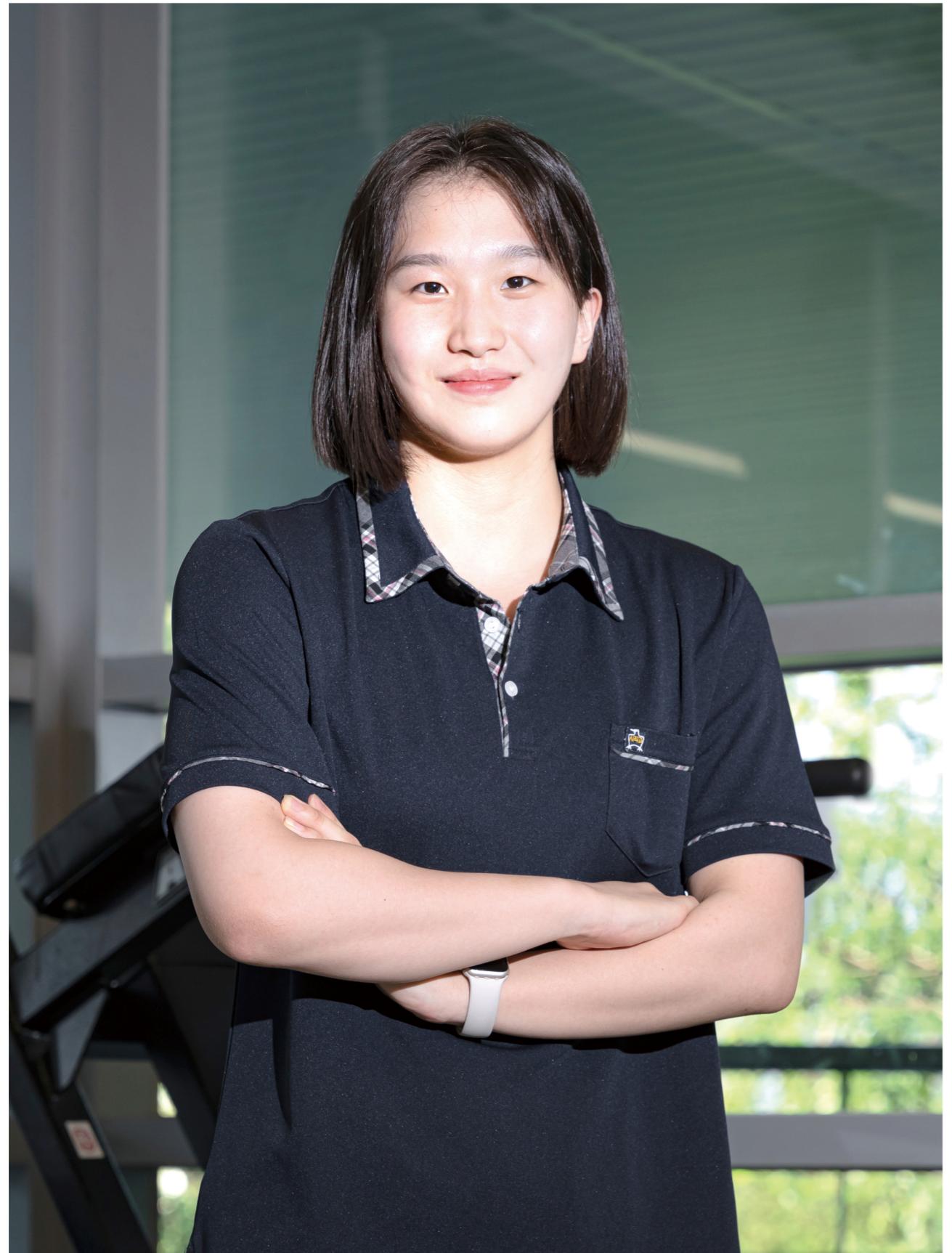


운동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프는 평생에 걸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저는 걸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골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김중웅 원로는 골프계의 신성인 바비 존스가 US 오픈에서 볼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스스로 신고하여 벌타를 받고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일화를 덧붙였다.

“기자가 바비 존스에게 ‘아무도 몰랐는데 왜 신고했느냐’는 질문에 ‘하늘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스포츠는 인성 교육의 중심입니다. 스포츠란 게임의 규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결을 통해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여 팀워크를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지덕체(智, 德, 體)에서 체덕지(體, 德, 智)로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학생들이 장장 12년 동안 마라톤처럼 뛰어갈 공부 여정을 지치지 않고 굳건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체인지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골프를 제대로 즐기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라며, 삶이 흔들릴 때일수록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자로서도 체육인으로서도 진심을 다해 골프를 선도하는 삶을 사는 김중웅 원로. 그가 지금껏 골프라는 스포츠에 막료된 것은 인생의 굴곡과 닮아있는 필드 위를 묵묵히 걸어온 경험 때문이 아닐까.



금빛 물살 가르는 인어의 질주

사직고등학교 수영부 이송은 선수

부산 수영의 자존심인 이송은 선수. 올해 대통령배와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연속

개인혼영 200m·400m 1위를 차지하며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눈부신 질주를 위해 맹훈련 중인 그를 만나보았다.



귀여운 꼬임으로 시작된 수영선수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부산광역시체육회관을 찾는다는 이송은 선수. 웨이트 훈련 1시간, 수영훈련 2~3시간을 하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간다. 쉴 틈 없는 일정이지만 그럼에도 수영할 때가 가장 즐겁다는데, 그가 생각하는 수영의 매력은 무엇일까?

“축구나 핸드볼 같은 단체종목과 달리 수영은 완전히 개인 기록 종목이잖아요. 제가 노력한 만큼 기록을 줄일 때 오는 쾌감은 정말 짜릿해요.”

이송은 선수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영을 취미로 시작했다. 이후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대회에 출전했는데, 왕중왕전에 진출하고 메달도 따는 등 활약을 펼쳤다. 당연지사 주변에서 수영선수를 해보라는 권유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송은 선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고.

“당시 아는 언니가 수영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절대 수영선수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선수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을 터. 그랬던 이송은 선수가 마음을 바꾸게 된 건 귀여운 꼬임 덕분이었다.

“수영선수는 하기 싫었지만,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습식 타월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 선수를 권유하던 분께서 ‘내가 저 수건 사줄 테니 수영선수 할래?’라고 하신 말에 혹해 수영선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웃음)”

선수로서의 훈련이 힘들기도 했고 때론 부담도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 좋았다는 이송은 선수. 특히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17) 접영 100m 출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제 기록상 접영 100m에서 절대 메달을 따지 못할 거라고



주변에서 말들을 했죠. 그런데 코치 선생님께서는 가능하며 용기를 주셨고, 결국 개인 기록을 2초나 줄이면서 우승했어요. 혼영 200m에서도 우승해 처음으로 2관왕을 차지했던 때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 둘, 셋. 심호흡 3초

이송은 선수의 주 종목은 ‘혼영’이다. 처음에는 접영과 평영을 했지만, 자유형과 배영도 곧 잘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코치 선생님이 혼영을 추천해주었다고. 그 결과 이송은 선수는 혼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맹활약을 이어가는 중이다. 수영선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을 함께해온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다며 이송은 선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가 멘탈이 약하다 보니 코치 선생님들께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챙기고 보완해 주세요. 한 번은 제가 큰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때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상비군으로 발탁되어 훈련을 다녀왔는데, 갑작스레 슬럼프가 찾아왔다며 이현주 코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거뒀죠. 2년 동안 슬럼프가 지속되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송은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해왔어요.”

무한한 응원을 보냈던 지도자와 그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갔던 선수. 서로를 향한 신뢰는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 더욱 단단해진 이송은 선수는 처음 출전한 전국체육대회(2021) 개인혼영 200m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이현주 코치는 이송은 선수가 유연성도 좋고,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녔다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성실히 훈련에 임하는 것은 물론 특히 수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열정이 넘치는 선수죠. 간혹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 지도자들이 말릴 정도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죠.”

작년에는 교내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힘든 내색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훈련을 소화하며 전국체육대회(2022)를 준비해 나갔다. 그 결과 개인혼영 200m와 400m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두 종목 모두 개인 신기록을 수립하는 기염을 쏟아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송은 선수에게 당시 상황은 10년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한다.

“컨디션도, 기록도 나오지도 않다 보니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어요. 대회 직전까지 긴장했는데, 스타트대 앞에서 ‘내가 이만큼 연습했는데 못할 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둘, 셋’ 3초 동안 숫자를 세고 심호흡하며 내가 해왔던 걸 보여주자 마음먹었죠. 그 덕분에 최고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수영의 미래로

최근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개인혼영 200m, 400m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상의 기량을 뽐낸 이송은 선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물론 두 대회 연속 2관왕을 차지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발목 부상이 있어 기록이 나오지 않아 아쉬워요. 좋은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발목 재활도 받으면서 노력 중인데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작년에 세웠던 개인 기록을 깨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사직고등학교 수영부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의 컨디션을 체크해 훈련 스케줄을 수립 중이며, 선수의 이해를 돋기 위해 영상을 찍어 함께 영법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훈련 후에는 단백질 섭취 및 아이싱(냉찜질)을 통해 몸 관리와 부상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활약을 지켜봐주세요. 전국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수 생활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절 믿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송은 선수는 향후 실업팀에 들어가 수영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고, 국가대표로도 활약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부산 수영의 자존심을 넘어 대한민국 수영의 황금기를 이어갈 이송은 선수. 푸른 물속을 유영하는 인어의 금빛 질주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주요 수상내역
• 2023 제4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경영)
- 개인혼영400m 1위, 개인혼영200m 1위
• 2023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 개인혼영400m 1위, 개인혼영200m 1위
• 202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경영)
- 개인혼영400m 1위(개인 신기록 04:54.95)
- 개인혼영200m 1위(개인 신기록 02:16.03)
• 2022 제4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경영) 개인혼영200m 1위
• 202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경영) 개인혼영200m 1위

지도자 인터뷰

이현주 코치



송은아!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는 멋진 선수라는 걸 잊지 말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일반부에 가면 언니들과 실력을 겨룰 텐데, 혹 한동안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 부담도 갖지 말고, 송은이가 하던대로 성실하게 수영하다 보면 그 진가는 반드시 발휘할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코치 선생님들과 함께 가꾼 아름답고 웅장한 날개를 마음껏 펼치렴. 이송은의 전성기는 이제 시작이다! 힘들거나 답답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언제나 너의 길을 응원해!

2025년 부산전국체전 성공 개최로 부산의 자부심 지킨다

부산시·부산시체육회 ‘원팀’ 되어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 돌입

글 _ 원성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9개 종목(정식 47, 시범 2) 3만여 명의 선수와 18개국 1천 3백여 명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가했다.

우리 부산은 선수·임원 등 1천 6백여 명이 참가해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목표를 향한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9일엔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자부심인 선수단 여러분이 이번 체전에 힘차게, 굳세게, 당당히 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한다.”며 임원과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또 “2년 뒤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1973년 제54회 부산전국체육대회

2025 부산전국체육대회는 화합체전, 문화체전, 안전체전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는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현재 경기장 배정과 개보수, 전국체전 대회 상징물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 육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이후 수많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해 할 기 넘치는 국제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25년 만에 개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라 부산으로서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것도 사실. 특히 국내 최초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는 도시로서 확 달라진 도시경쟁력과 위상을 2025 부산전국체전을 통해서 대내외에 널리 알리려 한다. 그만큼 대회 준비에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과 선수단이 함께하는 화합체전,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체전, 전 국민이 행복한 안전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25년 만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이라 그동안 확 달라진 부산의 도시 역량과 위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속도감 있는 경기장 준비로 엘리트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있어요. 다양한 축제 및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육·문화·관광이 융합된 체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거예요.”

부산시 ‘전국체전팀’을 이끌고 있는 한미정 팀장이 2025년 부산전국체전의 큰 방향을 설명해주었다. 현재 2025년 부산전국체전 준비는 부산시 체육진흥과 안에 있는 ‘전국체전팀’이 맡고 있다. 내년에 ‘전국체전기획단’이 출범할 때까지 전체적인 대회 준비 활동을 맡는다. 체육시설 전수조사, 시설 개보수 기본 로드맵 작성, 경기장 배정 기본계획 및 공·승인 계획 수립 등 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국비 확보, 조직·집행위 구성·운영 등 2025 부산전국체전 준비의 밑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중이다.





▲ 전국체전팀

체육시설 전수조사 2차례 실시, 신설 및 개보수 필요 경기장 많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2025년까진 아직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다. 그렇지만 경기장 같은 경우는 미리 챙겨서 경기 규정에 맞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축구, 야구, 육상, 자전거 같은 실외 개최 종목은 경기 특성상 경기장이 정해져 있지만, 실내에서 개최하는 종목의 경우 경기장이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부산시 내에 있는 모든 경기장을 파악해서 종목별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배정해야 한다.

“작년 11월에 전국체전TF팀이 신설했어요. 올해 전국체전팀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 전수조사를 2차례 실시했어요. 올 6월에는 경기장별 잠정 배정안을 정한 후에 7월부터는 부산시체육회, 종목단체와 합동으로 경기장 적합 여부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49개 종목 80여 개 경기장이 필요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31개 종목, 40여 개 경기장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는 대부분의 체육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존 경기장 역시 공·승인 기준이 달라져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종목의 경우 부산시 안에 경기장이 없어서

신설이 필요한 것도 있다.

“럭비, 테니스, 산악, 룰루경기장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야 하는데,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도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 공간, 나이가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사업인 ‘15분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해서 학생교육, 시민참여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방안을 높일 계획입니다.”

‘15분 도시’란 시민 누구나 15분 거리 안에서 문화와 체육 등 여가 활동을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부산시는 부산 전역에 ‘15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부산을 ‘건강·체육 천국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2025 부산전국체전 홍보도착 진행 중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부산의 저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스포츠 대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장 확보와 개보수 준비도 중요하지만, 홍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부산전국체전 상징물 공모가 지난 8월 31일 마감됐다. 마스코트와 구호, 포스터, 표어 등 전국에서 참신하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대거 접수됐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1차(서면), 2차(대면) 심사를 진행 중이다. 10월에 당선작이 선정되면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와 연계해 상징물 매뉴얼 개발과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홍보물 제작 등에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부산시체육회 ‘원팀’ 되어 대회 준비에 한마음

2025 부산전국체전은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니다. 부산시체육회, 구·군, 부산시교육청, 경제계, 시민사회 등 범시민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는 이미 지난해 전국체전TF 신설부터 ‘원팀’이 되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부산시 ‘전국체전팀’ 한미정 팀장은 범시민적인 협조와 동참이 2025 부산전국체전 성공 개최의 원동력이라 강조한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장 개보수 추진과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체전기획단 출범과 인력 보강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부산의 새로운 비전과 달라진 도시 위상, 도시경쟁력을 가능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체전팀 한미정 팀장

시민과 선수단이 함께 하는 화합체전,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체전,
전 국민이 행복한 안전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대에선
우리가 주인공!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작년에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경쾌하고 파워풀한 스매싱 소리가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이 한창인 체육관을 가득 메운다.
이제부터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을 만나보았다.



모든 선수가 정상에 설 수 있도록

1992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31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길영아 선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전통의 강호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인 체육관에 들어서자 온화한 카리스마로 팀을 지도하고 있는 정은화 감독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정은화 감독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의 인연의 시작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도에 부임해 올해 11년 차가 되었다는 그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의 창단 멤버다. 후배이자 제자인 선수들에게 더욱 큰 애정을 느낀다는 정은화 감독. 작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을 통해 이미 선수들 간 완벽한 호흡을 증명했지만, 정은화 감독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고 한다.

"배드민턴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교기입니다. 총장님께서는 경기장에 벌써 두 번째 방문을 하셨을 정도로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요. 또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는 덕분에 저도, 선수들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은 정은화 감독의 지도하에 복식 종목은 복식 선수들끼리, 단식 종목은 단식 선수들끼리 조를 편성해 훈련한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루 편성된 조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후배는 선배에게 배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실력도 빨리 향상되고 선수들 간 사이도 돈독하다고 정은화 감독은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더 건강한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전했다.



정은화 감독

챔피언이 모여 만드는 이야기

"저는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일인자, 즉 챔피언이 되었으면 해요.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훈련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정은화 감독은 생각, 감정, 의지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의견은 참고할 뿐, 선수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고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다. 또한 지도자는 선수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감독이 우선시하는 가치관이라고

"저학년 선수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에 생각, 감정, 의지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분위기를 배우며 기본기를 다듬고, 상대 선수들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비디오 분석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알아야 적을 안다'는 말이 있듯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대학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은화 감독. 또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에서는 체육관 한쪽 벽면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영상을 바꿔가며 띠워놓는다고 한다. 배드민턴은 무의식화된 패턴 싸움이기에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은 영상을 통해 '저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동작을 만드는구나' 등을 깨달아 자신과 비교 분석하고, 매일 셀프 코칭 시트를 작성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정은화 감독은 그런 선수들을 향해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 대신, '왜 그런 동작을 했니? 네 생각은 어떠니?'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선수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시점이니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끈끈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점점 훈련 양이 많아지다 보니 부상 선수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정은화 감독은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페이스를 잘 유지해 늘 해오던 것처럼 묵묵히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애정 어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초롱초롱 생기가 가득한 두 눈을 반짝이다가도 훈련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해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정은화 감독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그대로 물려받은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위해 날개가 돋친 듯 뜨겁게 활약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주요 수상 내역

2023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

- 대학부 혼합복식 1위, 3위
- 여자대학부 단식 2위, 단체 2위

2023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대일)

- 대학부 혼합복식 2위
- 여자대학부 단식 3위, 복식 1위, 2위

2023 전국실업대학 및 학교대학(대학)배드민턴

- 대학부 혼합복식 3위
- 여자대학부 단식 3위, 단체 3위, 복식 1위, 2위

202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 여자대학부 단체 1위, 복식 3위

선수 인터뷰

정효리 선수(주장)

제게 운동신경이 있다고 판단한 부모님의 권유로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올해 12년 차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우승입니다. 감독님께서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에서 활동하시던 당시 우승이 있었고, 30년 동안 기록을 세우지 못했었는데 마침내 저희가 해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2연패를 위해 힘든 훈련도 마다 않고 열심히 임해주는 동료 선수들에게 늘 고맙습니다.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써봤으면 합니다.



정효리 선수

지영빈 선수

저는 13년째 배드민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죠. 또 초등학교 때 훈련을 하면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준다고 해서 흑하기도 했습니다. (웃음) 배드민턴은 강한 스매싱, 볼을 받을 때의 쾌감이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훈련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지만, 피하면 지는 거잖아요. 배드민턴에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도 이겨내려고 합니다. 또 저만의 힐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휴식 타임엔 애니메이션 짱구를 본다는 것! 앞으로 전국체육대회까지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열심히 훈련해서 꼭 2연패 기록을 세우고 싶어요. 더 나아가 선발전까지 뛰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영빈 선수

구보은 선수

올해로 배드민턴 생활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공을 치고 넘길 때 '퉁퉁' 튀는 느낌이 좋아서 빠지게 되었어요. 저희 팀은 선후배 간 유대관계가 끈끈하거든요. 지칠 때는 동료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전국체육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요. 이 흐름과 분위기를 내년까지 이어가서 남은 4학년을 대학 생활 중 가장 근사한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구보은 선수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다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열정과 실력 모두를 갖춘 지도자들이 모여 강서구를 스포츠 메카 도시로 만들고 있는 강서구체육회.

지금까지 성과를 통해 그들의 목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Q. 강서구체육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영위'라는 슬로건 아래 김재업 회장과 8명의 부회장, 33명의 이사, 정현교 사무국장과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기찬 스포츠 정착, 선진 체육회로의 도약, 무엇보다 15만여 명에 이르는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복지회관 및 문화회관, 지역아동시설, 경로당 등에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지원·보급, 다양한 종목별 동호인 활동, 협회장·구청장배 대회를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명지다목적인조잔디구장을 비롯한 축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강서구의 전반적인 체육시설 위탁 운영으로 종목단체 운영·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서구체육회는 8개의 동체육회와 32개의 종목단체(정회원 20종목, 준회원 9종목, 인정단체 3종목)로 구성되어 있으며, 228개 클럽, 8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Q. 강서구는 생활체조, 파크골프 종목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각 종목이 주력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체육시설과 적극적인 지원·관리 덕에 부산 및 전국의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주력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생활체조대회' 어르신부 1위와 더불어 '어르신체육대회' 파크골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 생활체조 3위,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조대회' 생활건강체조분야(어르신부) 1위를 하였고, 특히 생활체조는 2019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광역시가 생활체조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체조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 국제친선교류지원사업'에 부산 대표로 선정되어 강서구체육회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한 팀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러한 성과는 순위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Q. 강서구체육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야외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서구의 자랑거리인 30리 벚꽃길에서 진행하는 '강서낙동강30리 벚꽃축제'와 강서구 내 경로당 8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강서노인운동회'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체육 행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대저수문생태공원의 그라운드골프 수업, 명지75광장과 지사문화회관의 게이트볼 수업, 명지 풋살장에서 진행되는 여성풋살교실도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주력하고 있는 여성풋살교실은 풋살에 대한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에 필요한 용품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강서구체육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현장 수업에 대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스포츠지도자 및 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담당 종목협회의 사단법인 자격증 추가 취득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서구민가족캠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캠프, 청소년 체련캠프, 장수체육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강서구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100세 시대'에 맞춰 강서구의 다양한 체육기반시설 이용,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강서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강서구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부산씨름왕선발대회 모래판을 뜨겁게 달구다!

송정씨름클럽



지난 9월 9일(토) 부산지역 남·여 최고 장사를 가리는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가운데 모래판을 주름잡았던 송정씨름클럽 5인을 만나 대회 출전 소감과 씨름의 다채로운 매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팔십이 넘어서도 즐기고 싶은 씨름

허성용_남자 장년부 1위

Q. 이번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장년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다. 소감이 궁금한데요.

남자부의 경우 체급이 아닌 나이로 나누다 보니, 체격이 작은 사람과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사(壯士)'를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승하게 되어 올해 목표를 이뤘습니다.

Q. 2018년에도 대회에 참가해 2등을 차지하는 등 씨름을 오랜 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씨름 부흥기였습니다. 씨름을 많이 보고 자랐고, 학교 모래사장에서 친구들과 씨름을 많이 했고요.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씨름이 다시 활성화되던 때 문득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부산씨름협회에 연락해 2016년부터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오랜 시간 씨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씨름은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무릎 위 신체가 닿으면 지는 아주 단순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또한 매트가 아닌 모래에서 운동하다 보니 운동량도 상당하고, 상대방과 몸을 밀착시켜 서로 땀을 흘려가며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씨름을 계속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육십 넘으신 분들도 클럽에 오시는데요. 저는 팔십이 넘어서도 씨름할 겁니다!

Q. 특별히 구사하는 기술이 있다면?

'밀어치기'인데요. 상대의 허리와 다리를 제압하면서 오른쪽으로 밀면 상대방이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기술로 제 특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 기술로 다 이겼습니다. (웃음)



Q.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목표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더불어 씨름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클럽에서는 감독·코치진을 꾸려 연습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씨름하는 영상을 유튜브(짱프로씨름클럽) 채널에 올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씨름을 즐겼으면, 나아가 씨름이 K-스포츠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K-씨름을 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

사만다_여자부 60kg 이하 3위



Q. 이번 대회에서 여자 60kg 이하부 3위를 차지했어요. 작년에는 1차전에서 떨어졌는데,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작년에는 제가 씨름한 지 6개월 만에 바로 대회에 나갔었어요. 일찍 떨어졌으니, 이번에는 욕심이 생겼죠. 꼭 4강에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씨름 연습을 하면서 힘도 세지고, 근육도 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또 대회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응원하며 재밌었어요.

Q. 다음 대회 목표는?

2등 해보고 싶어요. (웃음) 천천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Q. 한국인 남편 덕분에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씨름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남편이 저랑 씨름을 해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웃음) 그런데 남편의 권유로 '그냥 한번 와보자, 한국 문화 경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씨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던지기' 할 때가 가장 재밌어요.

Q. 외국인으로서 한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씨름은 상대방보다 제가 힘이 세더라도 질 수 있어요. 반대로 힘이 약해도 (기술로) 이길 수 있고요. 결국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서로 씨름을 겨루면서 친해진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씨름하면 멋있더라고요!



Q. 많은 외국인에게 씨름을 알려주고 싶다고 들었어요.

다른 외국인들에게 씨름을 공유하고 싶어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씨름을 경험할 일이 적거든요. 저도 취미로 즐기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씨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또한 독일에 간다면 씨름장을 열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웃음)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씨름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모래판의 미래, 우리가 씨름 히어로!

- ①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② 씨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③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심연지_여자부 60kg 이하 1위

- ① 우승해서 좋았습니다!
- ② 아빠가 씨름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씨름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 ③ 앞으로 선수로 전향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1등하고 싶어요!



윤나현_여자부 60kg 이하 2위

- ① 준결승에서 사만다와 대결을 했어요. 평소에는 사만다에게 거의 져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시합에 임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겨서 기억에 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많은 연습을 못 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 ② 엄마, 아빠가 2012년도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서 부부 동반 우승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씨름을 즐기다 보니, 저도 따라 하게 되었어요.
- ③ 다치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을 취미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_여자부 80kg 이하 3위

- ① 어른들이랑 씨름 대결했는데, 저보다 힘이 더 세신 것 같아요. 좀 더 연습했더라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 ② 동생이 씨름 선수인데, 대회에서 지는 모습을 보고 괜히 제가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씨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③ 앞으로 전국씨름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함께 날아오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국내 최대의 종합체육대회인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3일(금) 전라남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4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10월 19일(목)까지 7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구심점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국 체육대회는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라는 단일 종목 전국대회 형태로 시작하였다. 이후 종목별로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되다가 전국을 순회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전국체육대회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체육 시설 구축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08년 제88회 이후 15년 만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다. 약 3만 명(선수 2만 명, 임원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올림픽대회에 버금가는 감동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준비를 마쳤다. 대회는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종합경기장 등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정식 47개, 시범 2개)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식종목에는 골프, 궁도, 근대5종 등의 '기록종목', 농구, 럭비 등 '단체종목', 검도, 바둑 등 '개인단체', 당구, 레슬링 등 '개인체급' 종목이 있으며, 족구와 합기도가 시범종목에 채택되었다. 또한, 각 종목별로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의 경기가 펼쳐진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

구분	해당 종목
기록종목(23개)	골프, 궁도, 근대5종, 댄스스포츠, 룰러, 볼링, 사격, 산악,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영, 승마, 양궁, 에어로빅·힙합, 역도, 요트, 육상, 자전거,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보디빌딩, 펀수영
정식종목(47개)	농구, 럭비, 배구, 세팍타크로, 야구소프트볼, 축구, 하키, 핸드볼
개인단체(8개)	검도, 바둑,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스쿼시, 탁구, 테니스, 펜싱
개인체급(8개)	당구, 레슬링, 복싱, 씨름, 우슈, 유도, 태권도, 택견
시범종목(2개)	족구, 합기도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부산광역시는 지난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은 선수 및 지도자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준비상황 보고, 선수단 훈련 영상 상영, 단기 수여, 선수대표 선서, 격려 말씀, 결의 다짐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대표선수단은 선수 및 임원 포함 천육백여 명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다. 부산대표선수단은 특히 개인종목 ▲사격 김장미(부산시청) ▲수영 이송은(사직고) ▲육상 윤예린(부산체고) ▲요트 조성민·김지아(부산시청) ▲펜싱 송세라(부산시청) 선수의 활약과 단체종목 ▲농구(동주여고) ▲배드민턴(부산외대) ▲야구(부산고) ▲에어로빅힙합(부산광역시체육회)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생명의 땅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은지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9월 23일(토)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틀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1개소에서 개최되었다.

부산 생활체육 최대 축제인 이번 행사는 16개 종목에서 생활체육인과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6개 구·군 대항전으로 진행되었다.



화려한 불거리로 가득한 전야제

1일 차인 23일에는 성대한 전야제를 개최하면서 선수단 입장식과 주요내宾 소개, 선수대표 선서, 엑스포 유치 기원 퍼포먼스, 경품 추첨,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특히 부산의 총 16개 구·군의 선수단 입장으로 화려한 전야제의 시작을 알렸는데, 선수단의 위풍당당함과 체육대축전의 결의를 다지는 걸음걸이는 보는 사람들도 선수단의 결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부산의 특화된 구·군이 한 자리에 모여 체육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함께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특히 더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다. 특히 수영구에서 선보인 선수단 입장에서 로봇 드론을 통해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알리는 현수막을 띠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멋있는 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얼마 남지 않은 유치 결정의 날까지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두 사람은 오렌지색 축구공에 성공 기원 사인을 하면서 작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축구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축구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아이들의 성공 기원 단체 응원을 펼치면서 시민들이 환호를 자아냈다.



야외 행사는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존 등 각종 부스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체육축제가 다시 이뤄져서 더욱 기대가 크고 이번 기회로 다시 부산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부산시민을 하나로, 부산 생활체육 최대 축제

2일 차에는 축구 등 16개 종목 3,000여 명의 선수단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2개 경기장에서 뜨거운 경기를 펼쳤으며, 각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기도 눈부셨다. 경기력상은 북구체육회가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으며 성취상은 연제구체육회가 수상했다. 질서상 1위는 수영구체육회, 화합상 1위는 강서구체육회가 각각 받았으며, 체육대회 운영 우수단체는 그라운드골프협회와 줄넘기협회로 선정되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진행된 올해 대회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시민 화합의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묘기에 가까운 기계체조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황병윤

**인간의 몸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체조. 묘기에 가까운 역동적인 기계체조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를 다녀왔다.**

지난 9월 16일(토) 부산광역시체조협회 주관으로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가 부산아시아드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당일 비가 많이 내렸지만, 실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관람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되었는데 오전은 초·중등부 오후는 고등·대학·일반부로 나뉘었다. 종목은 연령과 상관없이 남자는 마루와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으로 이루어졌고 여자는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로 구성됐다.



기계체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남·여 공통 종목에는 마루 운동과 도마가 있다. 마루운동은 12x12 공간에서 체조 기술을 이용해 연기한다. 남자는 주로 기술을 중점으로 두고 여자는 음악을 가지고 연기한다. 실제로 남자 마루운동은 점프와 회전 등 기술적인 면모를 볼 수 있지만, 여자 마루운동은 회전과 같은 기술뿐 아니라 연기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마는 뛰어넘기와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체조 선수들의 놀라운 신체 능력을 볼 수 있다. 손을 짚고 점프하여 회전하는 모습은 마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준다. 실제로 회전과 착지에 성공하면 관중석에서 많은 갈채와 응원 소리가 쏟아졌다.

남자 기계체조 종목 중 링은 다른 종목에 비해 움직임이 적으며 양팔로만 몸을 지탱하여 밸런스를 맞춘다. 또한 물구나무, 공중돌기, 버티기 등의 동작 등을 통해 계속해서 팔로 지탱하며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안마는 기구의 손잡이를 중심으로 양편 및 옆면을 고루 이용해 몸을 곧게 뻗어 펴고 양손으로 버티며 연기를 한다. 철봉은 매달려서 스wing, 돌기, 잠시나마 물구나무를 서는 등 철봉에 매달린 채로 연속성을 보여야 해서 굉장한 난이도를 지녔고 경기를 보는내내 놀라움을 자아냈다.

여자 기계체조 종목 중 평균대는 폭 10cm 정도로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좁은데 뛰기, 구르기 등을 하면서 연기까지 표현했다. 이단평행봉은 높이가 다른 두 철봉을 오가는 종목으로 매달리기와 버티기, 흔들기 등을 보여주는데, 남자 종목인 철봉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낯설 수도 있는 기계체조. 하지만 이번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를 통해 기계체조의 무한한 매력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체조 종목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길 바라본다.



Interview

양학선 선수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 중간에는 2012 런던 올림픽대회 도마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양학선 선수(부산광역시체육회)의 사인회가 있었다. 이후 간략하게 양학선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산광역시협회장배 체조대회가 열렸는데 양학선 선수는 어떻게 대회를 보셨나요?

A. 제가 어릴 적에 체조대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요즘에 체조대회가 많이 생겨서 뿌듯하고 어린 선수들이 체조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 좋습니다.

Q. 기계체조 (도마)선수에게 특별히 팁을 알려준다면?

A. 체조를 하다 보면 핸드 스프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왜 안 되지?'라기보다 앞구르기부터 물구나무서기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Q. 체조대회를 관람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체조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 체조 선수에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서 대회를 관람해 주세요.



몸으로 하는 체스

펜싱 Fencing

춤을 추는듯한 우아한 동작. 그 가운데 상대의 수(數)를 파악하는 두뇌 싸움.
재빨리 검을 휘둘러 상대를 찌르는 순간, 펜싱의 짜릿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펜싱의 역사

펜싱은 일찍이 서양에서 검을 무기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스포츠로, 로마 시대 이후 통일된 검기로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로마 시대의 펜싱은 '엔시스(ensis)'라는 길이 40~86cm의 검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유명한 검사로 알려진 라니스테는 병사들의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16세기 들어 펜싱 역사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화약의 발달로 무거운 갑옷을 입는 전투에서 가벼운 전투로 변한 것이다. 이를 펜싱의 시초로 보고 있다. 많은 검객들이 이때 등장하면서 여러 종류의 검술이 연구되기도 했다. 당시 사용된 검은 스페인·이탈리아식의 '레이피어'로 양쪽 날이 좁고 긴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디 그라시(Di Grassi)가 검에 따른 팔과 다리의 합리적인 공격과 수비 검용의 법칙을 연구하였고, 이를 스페인의 라카란자가 이어받아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양리상디데이가 프랑스류의 검법을 만들어내어 종래 사용하던 단검을 폐지하고 장검만을 썼다.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펜싱 검법이 바로 이 프랑스 검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18세기 무렵에는 귀족계급에서 교양을 위한 스포츠로 변화하였고, 마스크를 쓰고 검 끝에 솜방망이를 달아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의 펜싱 역사

우리나라에 펜싱이 소개된 건 광복 이후다. 1946년, 일본에서 펜싱을 배운 김창환 등 몇 사람이 모여 '고려펜싱구락부'를 조직해 기술과 경기 방식 등을 전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 조선펜싱연맹이 설립되었고, YMCA에서 펜싱부를 만들어 선수들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 김영호 선수(남자 플러레)가 첫 금메달을 따면서 펜싱이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 펜싱의 경쟁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만 금메달 52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46개를 딴으며, 광저우(2010), 인천(2014), 자카르타-팔렘방(2018)에 이어 이번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몸으로 하는 체스

흔히 펜싱을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표현한다. 1대 1로 겨루는 스포츠 중 훈치 않게 체급 구분이 없는 만큼 펜싱은 스피드와 수싸움이 중요하다. 기술마다 반격할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쉴 틈 없이 두뇌 싸움을 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해 약점을 찾아야 한다.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펜싱 여자 에뻬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소속) 선수는 "펜싱은 몸으로 하는 체스예요. 수싸움이 중요한 스포츠이기도 한데요. 짧은 시간 내에 미끼를 던져서 상대를 끌어들여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점수를 내면 그 희열감은 엄청나죠."라며 펜싱의 매력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자료출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펜싱협회

한눈에 비교해보는 펜싱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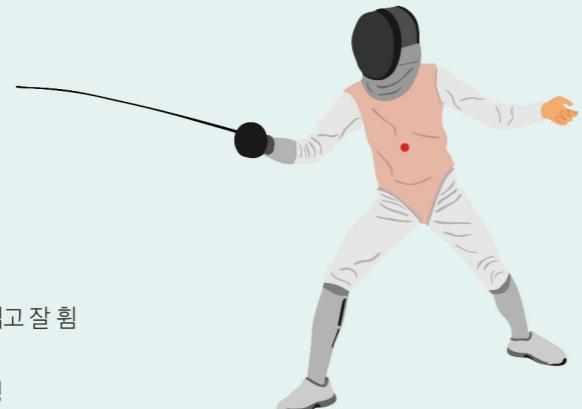
플러레 Foil

17세기 이탈리아에서 실제 결투를 나가기 전 단순히 훈련을 목적으로 연습하던 것에서 유래된 종목이다.



상체 찌르기 (팔과 머리, 다리 제외)

- 길이 110cm, 무게 500g 이하의 칼로 손잡이 부분은 단단하며 검은 가볍고 잘 휨
- 오직 검 끝으로 찔러야 득점 인정
- 공격권과 방어권이 주어지며, 공격권을 가진 선수의 공격만 점수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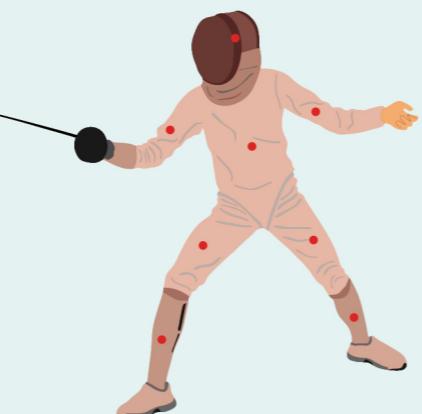
에뻬 Epee

실전 경기에서 유래된 종목으로, 중세 당시엔 '퍼스트 블러드(First Blood)' 규칙으로 승패를 정했는데, 목숨을 빼앗지 않는 대신 피를 먼저 흘리는 사람이 결투에서 패했다고 한다.



전신 찌르기

- 길이 110cm, 무게 770g 이하의 칼로 비교적 무거움
- 실제 결투시 가장 공격받기 쉬운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 윗부분이 큼
- 오직 검 끝으로 찔러야 득점이 인정
- 공격권과 방어권 없이 먼저 찌르면 득점 인정, 양 선수 동시 득점도 허용



사브르 Sabre

펜싱 종목 중 가장 과격한 종목으로 기마병들이 말을 타며 칼을 들고 싸우던 것에서 유래 되었다.

중요한 전투 수단인 말을 다치지 않게 하고자 상대의 허리 위를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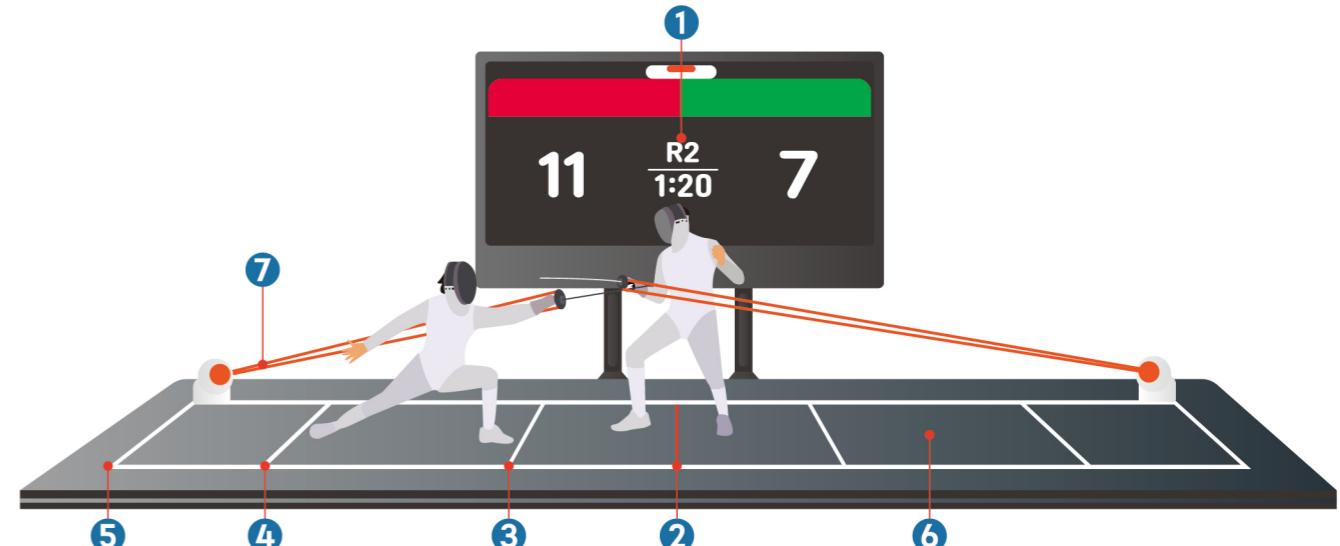


상체 찌르기 (팔과 머리, 다리 포함)

- 길이 105cm, 무게 500g 이하의 칼로 말 위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짧은 검을 사용
- 칼로 찌르거나 칼날, 칼등으로 베는 것이 가능
- 앞날 전체와 뒷날 3분의 1 부분으로 베기에 성공하면 득점 인정
- 공격권을 가진 선수의 공격만 점수로 인정



펜싱 경기장



① 점수판 : 빨간등과 녹색등은 득점 표시, 백색등은 공격이 빗나갔음을 표시

② 중앙선

③ 앙 가르드선 : 자세를 취하는 선

④ 2미터선 : 주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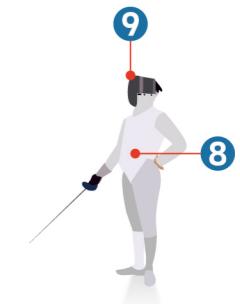
⑤ 최종 경계선 : 이 선을 넘어 뒤로 밀리면 점수를 뺏김

⑥ 피스트 : 너비 1.5~2m, 길이 14m의 금속성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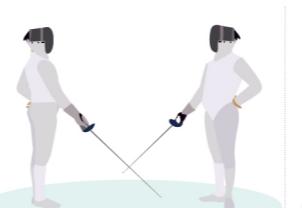
⑦ 몸통연결선 : 검을 전자 심판기와 연결시킴

⑧ 도복 : 방탄성과 신축성을 가진 첨단 섬유인 케블라(Kevlar)로 만들어진 재킷, 마스크 철망밑의 형겼과 함께 100뉴트(NW)의 힘을 견뎌야 국제 규격 통과

⑨ 마스크 : 투명마스크와 스테인리스 철로 막힌 마스크가 있음. 국제연맹이 정한 기구로 찔렸을 때 변형이 없어야 함



펜싱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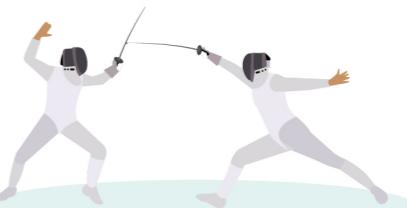
살롯(Salut)

서로 인사하라는 뜻으로 경기 시작과 끝에 함



앙가르드(En Garde)

펜싱의 기본 준비 자세



알레(Allez)

경기 시작을 뜻함

알트(Halte) 경기 멈춤

아따끄(Attaque) 공격

튜세(Toucher) 득점

농발라블(Non-valable) 무효

참고자료 대한펜싱협회 홈페이지

관절염을 예방하는 슬기로운 자세

각종 관절염으로 한 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절은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염이란?

관절은 연골,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관절염이다. 발병 부위나 원인에 따라 크게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된다.

퇴행성 관절염(골관절염)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있는데, 이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두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듯이, 연골과 그 주변의 뼈도 서서히 닳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작업이나 운동 등 연골을 오랫동안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비만 등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손, 발, 무릎, 척추 그리고 턱 등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지속성) 질환으로 주로 관절의 통증, 부기, 뻣뻣함, 그리고 관절 기능 상실 등을 일으킨다. 이 증상은 나이, 성별, 가족력, 흡연, 비만 등 특정 위험 요인에 따라 발병 확률이 높다. 또한 심장, 폐, 혈액, 신경, 눈 그리고 피부에 다른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양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가령 오른 손에 해당 관절염이 있다면 左 손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생활 속 습관으로 관절염 예방하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물리 및 약물치료를 할 수 있고, 평소에는 휴식과 균형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의 작업이나 운동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걸 추천한다. 또한 등산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운동보다는 수영을 하는 것이 좋다. 평소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부분에 걸친 후, 손으로 팔걸이를 지탱하면서 일어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항류마티스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비교하기

퇴행성 관절염	구분	류마티스 관절염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없어지거나 찢어지는 질환	정의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발생하는 만성 염증 질환
가족력, 노화, 외상, 비만 등	원인	가족력, 자가면역질환 등
평균 45세 이상 (75세 이상은 80% 발병)	연령대	30~40대 여성에게 많이 발병
무릎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고관절 등	부위	작은 관절(손가락, 발가락 등)
충분한 휴식 시 통증 완화 (하지만 사용할수록 통증 악화)	증상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으며 통증 발생 (피로감, 관절강직, 미열 등)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체육, 생활체육 ①

출처 부산광역시청



생활체육은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으로서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Sport for All)’ 또는 ‘평생 체육(Sport for Lifetime)’으로 알려져 있다.

▼ 생활체육이란?

생활체육이란 생애에 걸쳐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육이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신체, 정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생업에 충실하며 개인의 복지 구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생활체육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며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각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건강, 체력 및 후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체육·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하여

성인, 주부, 노인 및 청소년 등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이다.

둘째,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활동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 활동은 궁극적으로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만들어 국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단순한 여가 선용보다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범국민적, 범사회적 운동으로써 각종 스포츠와 여가를 사회에 널리 보급한다.

넷째, 생활체육은 창조적인 여가 활동으로 그 본체가 즐거움으로 행하여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바탕을 이루는 사회 교육적 활동이다.



▼ 생활체육의 필요성

현대 생활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건강 생활에도 적지 않은 위협을 주고 있다.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신체의 발육 및 발달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과다한 육류와 당분 섭취 위주의 식생활 패턴과 운동부족증 (Hypo kinetic disease)으로 국민들은 각종 성인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물질적인 풍요, 여가 시간의 증대 등 긍정적인 면의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즉, 편리해진 생활과는 달리 적어진 신체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와 지나친 영양 섭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다양한 병들이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이다.

생활체육을 국민 모두에게 생활화하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조기교육이 기반이 되어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에 토착화될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선진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대상자들이 운동을 생활화할 것이



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흥보나 교육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여가 활동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여가 활동에서의 자기만족은 여가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스포츠나 생활체육과 같은 능동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수동적 여가 활동에 참가하는 것보다 생활 만족도 향상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의 행복과 생활 만족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쳤다. 최근에는 일반 대중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운동의 생활화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인식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체육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동기유발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단계별 목표 설정

생활체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목표를 향한 도전 의욕을 복돋아 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자신의 수준보다 쉽거나, 혹은 어려운 운동을 선택하면 자신삼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즐겨왔던 운동을 포함하여 평생 하고 싶은 운동을 찾아보면 좋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중과 월별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걸 추천한다. 운동 종목과 시간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운동 습관을 평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운동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운동을 평생 지속할 필요가 없는 만큼 현재 자신이 흥미 있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단계별 목표 설정 TIP

- 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 ② 단기계획에 집중하라.
- ③ 장기계획은 유전적 성향을 고려하여 세운다.
- ④ 향상을 위한 목표 뜻지않게 현재의 체력을 잘 유지하는 목표도 중요하다.
- ⑤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하라.



2023

「부산모카 플랫폼: 재료 모으기」

자료·사진 제공 부산현대미술관



미래 모으기_나비가 노래하는 곳

전시 정보**기 간** ~2024.1.7.(일)까지**장 소** 부산현대미술관**전 시 장** 전시실1, 교육실, 강의실, 로비, 야외 일대**입 장 료** 무료

부산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은 8월 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미술관 전시실1, 로비 등에서 2023년부터 연례전으로 진행 중인 『부산모카 플랫폼』의 첫 번째 전시 『재료모으기』를 개최하고 있다. 『2023 부산모카 플랫폼: 재료 모으기』 전시는 지구적 대전환기에 다가올 미래 사회로 이어지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성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협업 형식의 그룹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세 개 팀의 창제작물 총 30여 점을 선보인다. 이는 서로 다른 분야의 창작자와 연구자, 기술자 등이 협업 연구와 개발의 과정을 거쳐 준비한 전시 자료이다.



유조키움센터_활초롱이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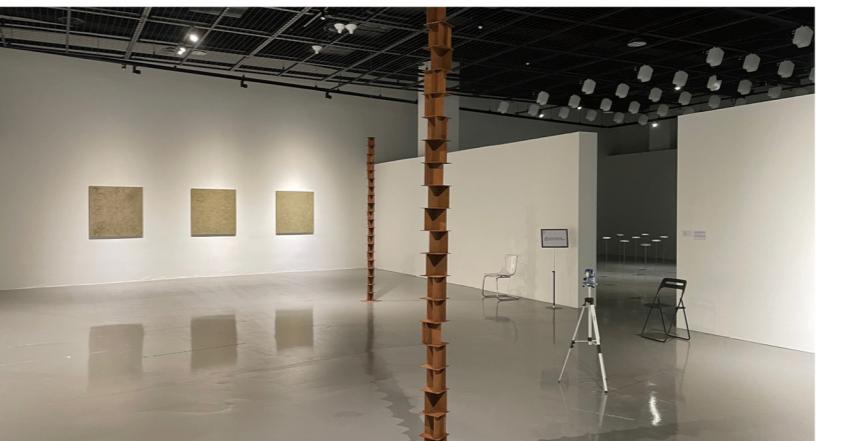
유조키움센터

첫 번째 참여 프로젝트는 을숙도의 철새 도래지를 위한 <유조키움센터(2023)>로 오주영(미디어작가), 김도영(전시기획자), 김정은(키네티ック작가)으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이다. 어린 새의 키움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중심적 기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두 번째 <죽은 나무에 접속하기(2023)>는 자연환경 속에서의 인간 주도적 기술 활용이 생태적 공존과 공생을 위해 어떤 결정과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으로, 유화수(시각예술작가), 임재희(전자테크니션), 이지양(그래픽작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다.

세 번째 <미래 모으기>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기후와 생태계를 기록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조현민(연구원), 신교명(키네티ック작가), 이가현(전시기획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이다.

언급된 팀별 프로젝트 외에도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구성된 <플랫폼 라운지>를 통해 환경·생태연구 및 작업 과정에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 영상, 전시 연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메타 뮤지엄>에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은 소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미술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미래 모으기_자연의 균형

죽은 나무에 접속하기_빨간리본 II



죽은 나무에 접속하기_2동잎 전나무



유조키움센터_불가능한 조감도

BSC SPORTS NEWS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체육계 인사 등 600여 명 참석, 결의 다지는 시간 가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하고 부산 대표 선수단의 사기진작과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구·군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등 체육계 인사, 선수 및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결단식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였고 이어 선수대표로 김민규 선수(검도·부산시체육회)와 윤예린 선수(육상·부산체고)가 나와 대표선서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승

리를 위해 그동안 구슬땀을 흘려 노력해온 선수와 지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전국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도 부산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만큼 부산을 대표하여 국위를 선양할 우수선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육상 윤예린(부산체고) 등 개인종목 선수들의 선전과 야구(부산고) 등 단체전 종목의 선전을 기대 중이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진행되며, 부산은 육상 등 49개 종목 천육백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체육축제로 시민 화합의 장 마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을 지난 9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양일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을 포함한 11개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부산 최대 체육축제인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전야제에서 16개 구·군체육회에서 준비한 퍼레이드를 통해 행사장을 찾은 부산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의 퍼포먼스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차

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대회 결과 경기력상은 북구체육회가 2년 연속 차지하였으며, 성취상은 연제구체육회가 차지하였다. 전야제 입장 퍼레이드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질서상 1위는 수영구체육회, 화합상 1위는 강서구체육회가 영광의 순간을 만끽하였으며, 이번 대축전의 체육대회 운영 우수단체는 그라운드골프협회와 줄넘기협회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부산시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 화합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육회 소식



서구체육회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는 9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부산종합운동장 조각공원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16개 구·군이 참여한 가운데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 참가하였다. 서구 선수단은 12개 종목에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대회 결과 최종 건강상, 태권도 겨루기 금메달 1개, 품새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줄넘기 공동 3위를 각각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 참가를 통해 선수들은 기량을 발휘하며 성황리에 대회 참가를 마쳤다.



동구체육회

2023 부산동구청장배체육대회

동구체육회는 9월 10일(일) 2023 부산동구청장배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일중앙초등학교운동장에서 국학기공식 전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구 생활체육 동호인 1,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고 땀을 흘리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야외 배드민턴, 축구,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체조,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파크골프, 족구 등 총 12종목에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영도구체육회

2023년 제4차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회

영도구체육회는 9월 8일(금)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총 30명의 이사 성원 보고로 이뤄졌으며, 2023년도 이사회비 집행내역 등을 보고하였고 2023년도 이사회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기타 토의로는 2023년도 체육회 하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하며 이사회가 마무리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3년도 부산진구 다문화가정생활체육교실 운영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K-pop 댄스 수업을 진행한다.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부산진구체육회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들이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즐거운 추억과 경험을 채울 수 있길 바라본다.



동래구체육회

2023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체육용품 후원

동래구체육회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체육용품 후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정길호 동래구체육회장은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동래구체육회 이사진들의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동래구체육회 후원을 통해 체육 저변이 확대되길 기원하였다.



남구체육회

제1회 부산고려병원배 및 남구축구협회장배 직장인 축구대회

남구체육회는 9월 17일(일)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제1회 부산고려병원배 및 남구축구협회장배 직장인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빈들과 축구 동호인 약 350명 16개 팀이 열띤 대결을 펼치며 부상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대회 결과 : 1구장 우승 남부산우체국, 2구장 우승 동국CM



북구체육회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

북구체육회는 9월 1일(금) 사직실내수영장 한국시민안전교육 진흥원 교육장에서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재난 안전의 의미 및 이해, 위급 시 행동요령 및 구조 구급으로 이론과 동영상을 통해 재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회 해운대구바둑협회장배 어린이바둑대회

9월 10일(일) 제1회 해운대구바둑협회장배 어린이바둑대회가 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두뇌 각축전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해운대구바둑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유소년바둑연맹, 강자성 프로 9단이 주관하며 바둑을 통해 생활체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바둑을 홍보하여 그 위상을 강화해 젊은 세대에 바둑 봄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하구체육회

2023 부산씨름왕선발대회

사하구체육회는 9월 9일(토) 송도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3 부산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했다. 총 18명의 선수가 참가해 남자 청년부 공동 3위 1명, 여자 70kg 이하 공동 3위 2명, 80kg 이하 공동 3위 1명으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 종목인 씨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금정구체육회

2023년 여성특화체육교실 개강

금정구체육회는 2023년 여성특화체육교실(풋살)을 개강하였다. 12명의 교육생이 참여 중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기초부터 심화 과정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유의하여 지도자의 전문적인 지도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금정구체육회는 금정구민의 일상 속 스포츠 생활화를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스포츠 활동 및 대회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개최할 예정이다.



강서구체육회

2023년 강서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강서구체육회 주관으로 2023년 강서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가 9월 11일(월)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파크골프협회 클럽별 상호 친목을 다지고,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며 성황리에 마쳤다.



연제구체육회

2023년도 연제구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연제구체육회는 9월 5일(화) 2023년도 연제구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제34회 부산 시민체육대축전 개최 계획 등 총 4건을 보고하고, 연제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김진근 연제구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는 협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수영구체육회

2023년도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제5차 이사회

수영구체육회는 9월 21일(목) 수영구청 중회의실에서 수영구체육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3년 부산광역시수영구체육회 신임이사 선임 보고와 하반기 업무 추진 및 주요 행사 일정을 안내하였다.



사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 임원 단합대회

사상구체육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연기되어 오던 임원 단합대회를 9월 2일(토) 거제 지심도에서 개최하였다. 3년 만에 모여 지심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며 서로 담소도 나누고, 앞으로 남은 체육회 행사 운영 및 계획을 토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는 11월 12일(일) 제1회로 개최되는 ‘2023 전국 사상 ECO 마라톤 대회’를 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기장군체육회

제19회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

기장군체육회는 9월 2일(토) 기장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장군 관내 13개교 200여 명의 아이들은 성별에 무관하게 함께 뛰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초등학교 우수 축구선수를 선발해 기장군 축구발전은 물론 축구붐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 가을소풍 실시



9월 22일(금) 꿈나무체능단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뜨락영농조합법인에서 감자 캐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원들이 감자 수확을 통해 우리가 농산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해보며 농민들의 노고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자를 수확하며 농사를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단원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제3회 부산북구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 10월 말 개최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회원으로 등록된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10월 28일(토) 제3회 부산북구스포츠클럽 가족 어울림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12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초등부, 성인부 남·여 1인 1종목으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4개의 유형으로 나눠 경기를 치른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꾸준한 대회 개최를 통해 북구 수영인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체육회 주관 '신나는 주말 체육 학교' 개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신나는 주말 학교 밖 프로그램 중 수영과 요가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영과 요가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 수준별 맞춤 수업을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평소 학업에 지친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체력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센터 인포 Center Information

영도국민체육센터

2023년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양성 교육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2023년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교육지도를 실시하였다. 수영·헬스·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실습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3년 추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 개최



9월 2일(토)과 6일(수)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23년 추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시내 테니스 동호인 1,000명이 참가하여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코로나19 이후 테니스 동호인이 급증하여 새로운 동호인들의 참가를 통해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를 느낄 수 있었다.

대회 결과

남자부 우승 : 금배조 - 효원클럽, 동배조 - 신세계클럽

여자부 우승 : 은배조 - 다온클럽, 동배조 - 강서원더A클럽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9월 24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되었다. 16개 종목 25,000명이 참가하였으며, 테니스는 15개 구·군 206명이 출전하여 각 구·군을 대표해 경쟁하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화합에 더 큰 의미를 두며 페어플레이를 통해 참된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회 결과 : 우승 - 북구, 준우승 - 부산진구,

3위 - 연제구,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볼링협회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볼링대회 개최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볼링협회가 주관하는 2023 청소년스포츠한마당볼링대회가 8월 19일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26일(초등부), 27일(중·고등부) 양일간 대연김스볼링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2인 1조가 되어 치루는 대회로, 새로운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초·중·고등부로 나누어 치러졌다. 각 부별로 다양한 시상과 시상품이 지급

우승 · 초등부 : 박세현(여고초), 김이준(반안초) · 중등부 : 박강호·이찬호(다송중) · 고등부 : 김상우(센텀고), 김민승(해강고)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9월 7일(목)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체조 전문선수들이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 방문해 체력측정을 실시하였다. 중등부(하수정, 박혜빈 선수), 초등부(정미르, 황서진, 오지태 선수)로 나누어 체력강화 프로그램, 경기기술분석, 심리프로그램 등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력측정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추후 재측정하여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할 예정이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3년 어울림문화공원 합동소방훈련 참여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은 9월 14일(목) 진행된 어울림문화공원 합동소방훈련에 참여하였다. 훈련은 어울림문화공원 내 입주 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행동 요령 등 의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은 이후 부산진구국민체육센터를 거점시설로 활용하여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은 주말 수영을 통한 기초종목 육성, 아쿠아로빅, 스포츠피구 프로그램으로 체육취약 계층인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및 수영종목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연계형, 동의대학교 스포츠 심리연구소와 함께 수영 전문선수를 대상으로 심리훈련 등 총 4가지 유형을 진행하고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는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스포츠 명상을 통해 현대 사회인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수영 회원 반 대항전, 배드민턴 회원 정기 교류전, 부산진구스포츠클럽 피구선수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할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



전국 자체화 시·도 체육회 중 최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건강이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운동을 즐기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체육회와 함께 '부산체육사랑카드'를 출시했다. 부산시체육회 회원 및 생활체육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이번 카드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를 통해 해소해보자.



부산체육사랑카드, 무엇이 특별한가?



평소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이 카드를 통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체육사랑카드는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지정한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50개)을 이용할 때 월 최대 1만5천 원 한도로 10% 이용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시내 구·군 생활체육센터는 물론, 스포원파크, 명지레포츠센터, 동래인공암벽장, 장안천야구장, 정관아쿠아드림파크, 남구실내빙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할인이 적용되지요.



저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 소속인데 장안천야구장, 리틀야구장 같은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스포츠 시설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혜택이 한정적이지 않은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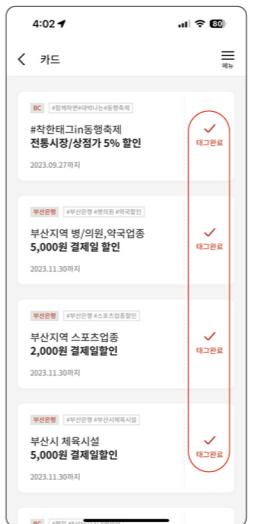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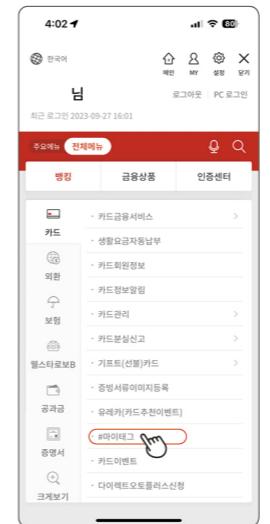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선호하는 5대 업종(스포츠, 의료, 건강식품, 학원, 생활)**에서 할인이 된답니다. ▲골프, 레저, 스포츠 업종과 ▲병의원, 약국 업종에서는 월 2회 최대 1만 원 한도에서 10%, ▲학원이나 ▲홍삼, 인삼 등 건강식품 업종, ▲간편 결제, CU, GS25, 스타벅스에서도 월 2회 최대 5천 원 한도에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 및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타벅스까지 된다니 혜택 범위가 꽤 넓군요! 연회비가 1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업종별로 월 할인한도 안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 한 달에 최대 4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니 완전 꿀이득인데요!?



그럼요! 완전 꿀이득이지요! 단, 통합 할인한도에 따라 40만 원 이상 시 1만 원, 80만 원 이상 시 2만 원, 120만 원 이상 시 4만 원의 혜택을 받는답니다. 또한 부산체육사랑카드 출시를 기념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부산지역 스포츠 연계 업종 결제 시 최대 1만 2천 원 할인 이벤트도 열리고 있답니다. BNK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이벤트 이용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들어가서 전체 메뉴>카드>#마이태그 페이지에서 부산시 체육시설 및 스포츠 업종, 병의원약국 업종을 태그하고 난 후 결제하면 할인이 제공된답니다.



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체육을 사랑하는 생활체육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카드이겠군요.
이 카드를 열심히 사용해서 열심히 훈련하면 내년에 열리는 생활체육인 동호회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내년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올바른 장례문화의 시작

(주)시민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은 장례문화의 부조리한 관행 및 관습을 타파하고
'정직한 경영, 투명한 운영, 친절한 서비스'를 목표로 한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꽃장식 분향소 접객실 내실 상주휴게실 상담실 주차장 하늘정원

✓ 계열사 장례식장

 (주)시민장례식장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051)896-4444
BUSAN PAIK HOSPITAL FUNERAL HALL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051)893-4444
HAEWUNDAE PAIK HOSPITAL FUNERAL HALL

소중한 분이셨다면 특별한 곳에 모셔야 합니다.

* 24시간 무료상담 및 부산관내 무료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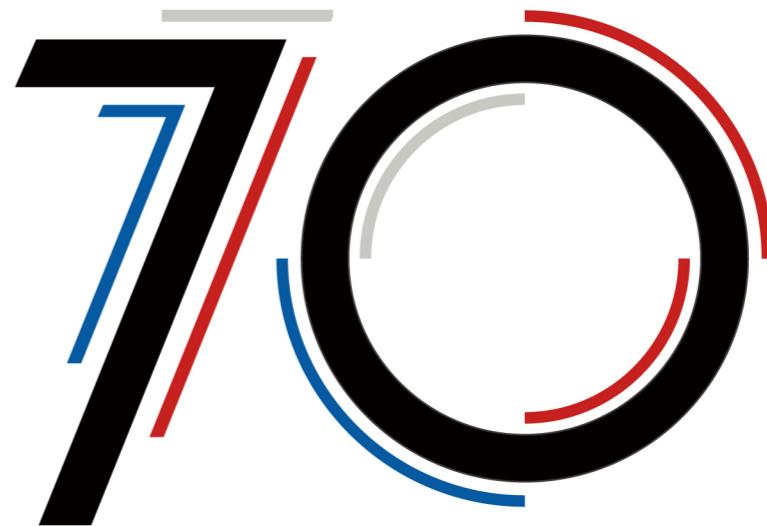
(주)시민장례식장 | 24시간 무료상담 | 051-636-4444
SIMIN FUNERAL HALL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주)시민장례식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화승



주년!

70년의 길을 걸어,
100년의 꿈을 꿉니다.

| 화승 창립 70주년 축하 이벤트 |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화승이라는 이름, 화승의 70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3년 1월 16일~11월 30일까지

* 인스타그램 팔로우, 70주년 엠블렘 인증샷 해시태그 게시.
* 추첨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로 함께합니다.
* 매월 70분께 기프티콘, 무료 초청공연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화승의 70주년을 함께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화승 오피셜
(@hwaseung_official) 계정을
팔로우 한다

매월 진행되는 화승 오피셜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한다

다양한 상품도 받고
즐겁고 아름다운 공연도 관람하며
특별한 2023년을 함께한다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산도시가스
http://www.busanges.co.kr

채널 추가 알림톡 차단 신고

부산도시가스

기록공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서비스를
간편하게 공유하세요.

요금 조회/납부
기록으로 원하시는 학년은
면도문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온행 및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여 신청하세요!

이사방문 신청
출연자 연장이나 배우고 간편하게
인증합니다!

한번의 가입으로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메뉴가 안보이시는 경우 왼쪽 하단의
네모상자를 클릭해주세요.
[홈화면에서 도시가스톡 사용하기]
체팅창 우측 상단의 3 클릭 → 우측하단
설정버튼 클릭 → 화면에 바로가기 주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도시가스 GAS
도시가스 톡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사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가입/ 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1988

2002

2030

WORLD EXPO
BUSAN, KOREA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계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를 모두 치른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부산이 곧 자부심이 됩니다.

BNK 부산은행이 힘차게 응원합니다!